빈손·빈발 있기에 보이는 손·발 있어

☞ 19면에서 계속

놓고는 도로 가져오는 격이죠. 줬으면 해결하게 믿고 내버려둬야 될 텐데 그 서류를 도로 뺏는 격이란 말입니다. 못 믿으니까! 줬다가 빼앗다가 줬다가 빼앗다가 이러니까 일이 제대로 될 게 뭡니까?

그러니 진짜로 믿는 데서 여러분의 가정에 후환이 없고 애고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모든 업식이 무너지고 인과 응보가 무너지고 모든 영계성이 무너지고 세균성이 무너지고 생사 윤회에 끄달리지 않을 것이며, 모두 그렇게 되는 까닭에 편안함이 오는 겁니다. 삶의 보람을 얻고 삶의 자유를 얻고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만날 이름만 부르고 이름을 믿고 간다면 그건 안됩니다. 주인공이라는 이름은 '얘, 아무개야! 물 한 컵만 다오.' 할 때처럼, 물 한 컵만 달라고 하기 위해서 이름이 붙은 거지, 실질적으로 목이 말라서 물을 먹기 위해서 떠 가지고 오는데 이름은 하등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진실로 믿어야 합니다. 나 따로 있고 주인공 이름 따로 있고, 해 달라는 놈 따로 있고 해 주는 놈 따로 있다면 그건 안되죠. 과거에 살던 자기더러 현재 자기가 '하, 이놈아, 네가 살면서 다 저지르고 네 놈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뿌리, 네 놈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정자 난자를 비롯해서 나를 형성시킨 것 아니냐. 네 놈이 형성시켜서 네 놈이 끌고 다니는데 네 놈이 해결해야지 누가 해결해?' 하고 진짜로 맡겼을 때 그 참 자기가 나서서 일을 보는 겁니다. 따로 따로 있으면 안되죠. 과거에도 자기가 살았고 현재에도 자기가 살 겁니다. 모습만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바뀌질 뿐이니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님을 꼭 알고 밝은 주인공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삶 어떤 의미 있나요

문 스님 게송을 선법가로 만든 '빈손'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 때도 빈 손 갈 때도 빈 손, 올 때도 빈 발 갈 때도 빈 발"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고 가는 중에 현재의 삶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저는 무엇을 하러 나온 것입니까?

답 두 가지로 요약해서 표현을 해보죠. 우리가 길을 걸을 때 보면 한 발 떼어놓으면 한 발은 없어지고 한 발 떼어놓을 때 한 발 또 없어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한 발은 무(無)에서 한 발은 유(有)에서 항상 떼어놓고 가니까 내가 떼어놓은 사이가 없죠.

또 전력이 말입니다. 태양에서 전력을 끌어쓰는데 우리가 기계를 해 놨기 때문에 태양열을 받아서 전력으로 쓸 수 있죠? 장치를 해 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써 주장자를 완벽하게 세워 놓지 않는다면 태양열을 받아쓰려고 장치를 해 놓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 태양열이 들어올 때는 들어온다는 말도 없고 들어오는 게 보이지도 않고 그렇지만 태양열은 들어와서 흡러서 전력으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빈 발 빈 손이라 한 겁니다.

무심 속에 무(無)의 세계, 정신 세계가 있기 때문에 유(有)의 세계, 물질 세계가 나온 것입니다.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여러분이 눈 깜짝할 사이라 볼 수가 없죠. 가설을 해서 불을 켜고 끄는 것만 알았지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못 보시죠? 못 보는 건 못 보는 건데 진짜로 빈 손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고 빈 발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우주 대천세계를 한 발로 디뎠고 여러분이 딛고 있는 이 발이 부처님 발 아님이 없기 때문에 한 발입니다. 부처님 손 아님이 없기 때문에 한 손이구요. 그 광대무변하고 묘한 도리는 여러분이 마음공부를 하셔야 아시게 될 겁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빈 손이다 빈 발이다 하는 거, 없다 단정을 짓지 마시고 여러분이 빈 발 빈 손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 보이는 손, 보이는 발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러면 알게 되겠죠.

마음 청정한데 왜 닦아야 하나

문 인간의 마음은 본래부터 청정하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마음을 닦아야 하는지요?

답 닦아야 한다는 언어도 사실은 우매한 거지요. 닦는 것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살고 죽고, 이렇게 뒤집어지고 하고 하지만 우리 살아나가는 거는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요. 그래서 오신통이 바로 자동적인 컴퓨터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니깐요. 자동적인 오신통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여러분 각자 앞에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입력된 것이 현실로 또 나오는 거니까 닦는다 안 닦는다에 신경을 두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그대로 여여하고 그대로 살아나가는 게 그놈이 한다는 것을, 보고 듣고 들이고 내고 하는 것이 전부 그 한 놈이 한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잘 생각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꿈을 잘못 꾸었다고 해서 큰일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나쁜 꿈을 꿨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이런 꿈을 꾸게 하는 것도 너니까 잘 돌려서 현실에 잘 돌아가게 하는 것도 너다.' 이러고 쓱 돌려 놓으란 말입니다. 본래 청정한 자리를 믿지 못하고 모르니까 그렇게 닦으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의 주인공은 같은가요

문 스님, 제 친구의 주인공과 저의 주인공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답 주인공은 똑 같애요, 생명이 같듯이 하나입니다.

예전에 어느 사람에게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더래요. 그런데 우물에 빠졌더래요. 돌로 쌓은 우물에 말입니다. 그런데 빠지다가 어디에 걸려 가지고선 어떻게 해서 붙들고는 그냥 애를 쓰고 있다가 그렇게 마음을 냈더랍니다. "얘, 아무개야." 자기더러 하는 소립니다. "진짜 네가 있다면 나를 살게 사람 좀 보내다오." 하고는 그냥 매달려서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떤 패랭이 쓴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물이 먹고 싶어서 왔다가 물을 푸려고 두레박을 내려보내는 순간에 그 사람을 보고선 두레박을 내려보내서 그걸 붙들고 올라오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거짓이 아니에요.

이 몸뚱이 '나' 가 진짜 나가 아니라, 이 몸뚱이는 바로 중생들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라는 대로 먹여주고 움직여 줘야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심부름꾼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시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길잡이인 선장이 다스릴 수 있는 거는 속의 모든 생명의 의식들이거든요. 의식들은 자기 자유대로 생각을 내지 못해요. 그러니깐 내가 생각을 하는 대로 따라주는 형상이죠. 악으로 나가면 악으로 따라주고 선으로 나가면 선으로 따라주는 그런 쓸모 없는 중생들이죠. 그러나 내가 잘 다스리면 쓸모 있는 보살로 화하죠.

그래서 조복을 받게 하라 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뇌 공장, 대장 공장, 위장 공장이 다 작용을 하고 돌아가는 게 법입니다. 그래서 평등공법이 있는가 하면 또 수레공법이 있죠, 돌아가면서 작용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내 몸 안에서도 깨우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몸 안에 모든 마음이, 의식이 바뀌면 천백억화신으로 화한단 얘깁니다.

보이지 않는데 정신계에 모두 나가서 자기에 맞도록 일을 해 주고, 바로 이 몸뚱이는 보이는 데서 뛰고, 양면에서 작용을 하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안될래야 안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남의 마음을 조절하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 도리를 꼭 알아야만 됩니다.

악의 힘을 쓰는 이들이 많아

문 큰 빛을 세상에 보여주셔서 어두운 중생이 감사 드리옵니다. 아무리 본 성품은 만물이 다 갖추고 있고 다 평등한 자리라고 하나 세상에는 분명 삿된 기운으로서 악의 힘을 더 크게 쓰는 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주인공들을 본체의 주인공과 쉽게 구별하는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답 내 마음이 스스로 밝아진다면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게 되죠. 이 세상을 나쁘게 보는 것도 자기가 그렇게 보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쁘게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 나쁘게 보지 않고 '아하! 이런 거로구나!' 하고 자기가 스스로 좋게 돌리면 좋게 돌아가게 되죠. 그럼으로써 가정에도 화목이 오고 서로 사랑을 하게 되고, 나가서도 남들을 사랑하게 되고 남들 보는 눈이 달라지죠.

우리가 그 도리를 진정으로 안다면 돼지 소굴에 들어가서 돼지로 내가 며칠 동안을 산다 할지라도 물들지 않습니다. 또 강도 속에 들어가서 내가 강도가 돼 본다 하더라도 강도의 물이 들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 향기로운 내음이, 내음 없는 내음의 그 불빛이 너무 밝아서 그 캄캄한 강도의 마음도 녹일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 쪽 사람은 모르지마는 공용, 공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속에 자기 주인공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강도가 내 집에 들어오더라도, 저 강도도 바로 나인 것이다, 육신은 나요, 그 마음은 내 마음이니 둘이 아닌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일치시켰을 때 한마음이 됐을 때 비로소 그 강도는 다른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코 둘은 둘인데 해칠 수가 없이 됩니다. 주인공으로 하여금 육신이 움죽거리는 건데, 그 마음으로 하여금 육신이 움죽거리는 건데, 그 마음이 스르르 녹는데 어떻게 칼로 사람을 찌르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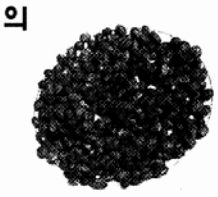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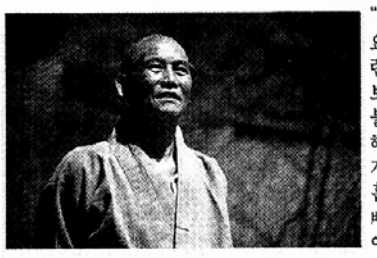
그러니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겨울과 같이 딴딴히 얼었다가도 일치를 하게 되니까 금새 봄이 오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시간적으로 본다면 겨울과 봄이 따로 기간을 두고 있지만 한순간에 겨울이 봄으로 된 겁니다. 그 강하게 얼었던 얼음이 그냥 순간 녹아 버리니까 물이 돼 버리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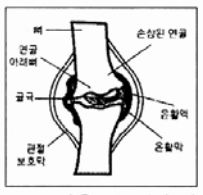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면 모두가 천국으로 보이지만 여러분이 모두 악으로써 병이 들면 모든 게 악으로만 보이고 도둑놈으로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합니다. 도둑놈이면 어떻고 도둑놈 아니면 어떠랴? 나 걸음 걷는 것을, 다스려 가면서 올바로 진실하게만 꾸준히 걸어갈 뿐이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만났던 사람, 인연 됐던 사람이 스스로 언젠가는 착해지고 언젠가는 그런 걸음을 다 떼어버리는 거죠. 더디고 이르고 그뿐인 것이죠.



그림 · 최주현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여래원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단花화'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엽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번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적극정성 93일 인간의 건강이 금괘처럼 차곡차곡 쌓여 꽃처럼 만개하라는 범주스님의 소망이 담겨 지어진 검정콩의 이름이다. 선식콩 금단화를 만드는 방법은 스님의 비방으로 만든 액즙에 검정콩을 깨끗이 씻어 말린뒤 액즙에 20여일간 담그어 두었다가 꺼내어 10여일을 말린다. 이 과정을 거쳐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달. 이렇게 3번 반복해 검정콩 금단화가 완성되기까지 무려 93일이나 소요된다. 콩은 '속퍼랭이콩'이라 부르기도 하는 서리태콩을 사용한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정성을 다해야만 하는 고달픈 작업이지만 그 과정자체가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한다는 신념때문에 힘든 줄 몰랐다고 범주 스님은 말했다.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 상담문의 ☎ (02) 3437-8282 ◑

골다공증 관절염 류마티스
'물렀거라, 상어연골정제로 완전해방'
퇴행성 류마티스성 통풍성 관절염 자연추출미생물 이온화 '코랄샤크골드' 복용 1개월만에 확연한 화제만발


계단을 오르거나 약간의 활동만으로도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관절염) 관절이 뻣뻣해지면서 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퇴행성 관절염), 여기저기 곳곳이 붓고 아프고 힘들며 물이 고이는 경우(류마티스성 관절염), 엄지발가락이나 팔꿈치가 붓고 움직이기 힘든 경우(통풍성 관절염), 이 모든 증상으로부터 완전해방될 수 있는 건강식품이 수입돼 화제다.
최근 뉴질랜드에서 수십년간에 걸친 연구결과 끝에 개발된 '상어연골정제' 상어에서 추출된 특수갈습과 마그네슘, 세레늄 등 기타 자연에서 추출된 미생물을 복합 이온화하여 인체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원리로 이루어진 '상어연골정'은 닭아 없어지는 물렁뼈가 생성되고 골이 빈 곳에 인이 채워져 골다공증을 잡아주며 몸에 나쁜 물이나 균을 잡아 정상인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탁월해 세계적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코랄샤크골드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관절염, 류마티스, 통풍, 퇴행성 환자들에게 희소식으로 여겨지는 '상어연골정'은 국내 삼일양행(02-790-8200)에서 독점 시판하고 있으며 부작용 없이 1개월 복용부터 확실한 효과가 검증되고 있어 연일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코랄샤크골드〉
한달분 22만원, 두달분 40만원

IMF다이어트 인기급등
만인들의 희소식. 최근 삼일양행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인하하였고 또한 효과를 최대한 증대시킨 것이 바로 IMF 다이어트이다.
이 다이어트의 특징은 한방에서 추출된 특수성분이 함유되어 부작용없이 자연스럽게 몸에 흡수된다는 것. 현대인들의 운동부족과 영양섭취로 인하여 누적되는 지방분과 기존의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식전복용이 더욱 효과적이며 단기간 감소요법 보다는 꾸준히 몸에 무리가 가지않는 효과를 가지며 3-4개월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남성과 여성, 출가를 원하는 여성 출산후 오는 비만 등 많은 분들로부터 희망을 주는 다이어트로 거듭태어났다고 한다. 비만인들의 희소식은 틀림없으며 한방성분의 10여가지 조화가 균형을 잡는 비법이라고 한다. 삼일양행측은 IMF 졸업할 때까지 현재가격을 고수하겠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IMF다이어트 1개월분 88,000원
■문의 : 삼일양행 서울(02)790-8200

"불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뵙게 되었는데 엣부터 금강산 밑 불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한재를 탕재로 하여(한박스 60포)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이며 풍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여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과 당뇨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 463번지 중미산 불심정사 전화번호 : (031) 771-1571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불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016) 222-7701
보시금은 불심정사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정강 대 진 압장